



·삼수의 원리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역사 (85회)

# 구세주를 만나 영생 못 얻으면 너무 처참하고 불쌍한 사람이 된다

## 11절 : 구세주가 인류를 구원하는 방식

- 1) 빛으로 거듭난 구세주가 죄인의 몸을 입고 또 왔다
- 2) 이 세상에는 학문도 종교도 없었다
- 3) 빛의 하나님이 왜 육신을 남기시고 환원하셨을까
- 4) 인류의 죄를 담당하고자 7년 옥고를 치름
- 5) 세상 왕들을 세우고 치리하는 주님
- 6) 5대 공약 중에 공산주의를 없애겠다
- 7) 우리나라에 불어오는 태풍을 막겠다
- 8) 여름장마를 못지게 하고 풍년을 하겠다
- 9) 한반도에서 남북전쟁을 못 일어나게 하겠다

## 4) 인류의 죄를 담당하고자 7년 옥고를 치름

구세주께서는 초창기부터 누누이 말씀하신 것으로서 7년 만에 출옥하여 첫 단상에서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겨라, 형제의 죄를 내 죄로 여겨라, 형제의 사정을 내 사정으로 여겨라, 하는 자유율법을 선포했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우리 식구들 가운데에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악조건이 되느냐 호조건이 되느냐 하는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사실은 그런 율법을 선포하는 것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그러한 율법을 선포한 거예요.”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구세주께서 유죄판결을 받게 된 주된 포인트가 역광에 의해서 빛이 찍혀 나올 수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이슬이라고 거짓말하여 헌금을 거두었으니까 사기죄의 벌을 받아야 된다고 하여 검사가 15년 구형을 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판받을 때, 판사한테 “판사님이 사진을 찍어보십시오. 아무리 내가 옥중에 있으면서 이렇게 쇠고랑을 차고 재판을 받고 있는 몸이지만 사진을 찍으면 이슬성신이 찍혀 나옵니다. 나오나, 안 나오나 검증해 보세요.”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판사는 실금실금 웃으면서 안 찍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재판의 공정성을 기하려면 피의자가 말한 것을 전부 검증한 다음에 죄의 유무를 결정해야 되는 것

입니다. 재판하는 장소에서도 주님을 찍으면 이슬이 찍혀 나올 것이라는 걸 판사 자신도 알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당시 제일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으로부터 “내 리지도 않는 이슬성신이라는 걸 내린다고 사진을 조작해서 성도들한테 거짓말하여 헌금을 거뒀으니까 이건 사기죄를 적용하여 처벌하라!”는 지시가 있었던 고로 판사는 이슬이 찍혀 나와서 주님을 무죄로 석방시키게 되면 자기의 직책을 유지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사진을 찍어달라고 간청을 해도 들은 척 만 척하고 징역을 때린 것이었습니다.

구세주께서는 그 무슨 죄가 있어서 징역을 산 것이 아닙니다. 구세주라는 사람이 아무 죄도 없이 흠과 티가 없는 사람이 7년 동안 그러한 징역을 사는 것은 모든 인생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그 징역을 산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구세주를 옥중에서 끌어내려고 애를 쓰고 기를 썼지만 되어지지 않은 것은 이미 7년 동안 죄를 담당하기 위해 옥중살이하도록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옥중살이를 꼭 해야만 했다고 말씀하시면서 만약 옥중살이를 하지 않으면 우리들을 구원할 길이 없었다고 하십니다.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려면 하나님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하나님으로 만들려면 우리들 속에 있는 나라는 의식을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전부 죽여버려야 합니다.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 하나님은 생명의 신이기에 마귀와 죄인도 영생하고 죄가 없는 의인도 똑같이 영생하지만 방식이 다르다

구세주께서는 7년 동안 징역을 받은 것이 죄를 담당하는 것으로서 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7년 동안 징역살이하면서 그 마귀들을 100% 없앨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키웠던 것입니다. 예언서 그대로 구세주의 능력이 95년도부터는 원자와 같이 무럭무럭 자랐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능력이 아니면 세계 인류를 다 영생을 줄 수



구세주가 겪은 7년 옥중고난은 계시록의 7년 환난이다

없는 것입니다. 이 세계 인류 가운데는 말할 수 없이 더러운, 말로 할 수 없는 죄를 짓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도 다 살리려면 그 사람들의 말로 할 수 없는 큰 죄를 다 씻어야 되고 죄의 마귀의 신을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 마귀를 죽여 없애버리고 닦아내야 되는데 그 뱀속까지도 오염이 되어 있는 것을 그걸 다 씻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마귀를 죽여도 죄에 오염되어서 더러워져 있는 상태가 그대로 있으면 다시 마귀가 들어와서 앉아 있을 수가 없기에, 마귀가 들어와서 앉아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씻어내고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꼭 차게 들어앉아 있을 수 있는 그러한 그릇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구세주께서는 우리들에게 마귀 죽이는 기도를 가르쳐주신 바 있는데, 주님께서도 7년 동안 징역살이하면서 밤이나 낮이나 밤잠을 자지 아니하고 “무량대수 마귀 일 초 동안에 무량대수 횡수로 계속해서 뿌리째 뽑아서, 성령의 검으로 난도질하여 성령의 도끼로 짓어겨서 성령의 맷돌로 갈아서 성령의 불로 태워서 유향불로 박멸소탕!” 이렇게 마귀 죽이는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승리제단에 나오면서도 옛날 고집, 옛날 성격 그대로 가지고 살면 절대로 하나님이 되지 못하는데, 그런 사람은 꼭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 지옥이 얼마나 무서우나 하면 1년, 2년만 뜨거워서 팔팔 뛰는 게 아니고 천 년 만 년 억만년 영원무궁토록 팔팔 뛰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신은 죽음의 신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불은 타는 불이 아니며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은 생명의 신인 고로 마귀도 영생을 하고 죄인도 영생을 하고 죄가 없는 의인도 영생을 하고 똑같이 영생을 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영생하는데 마귀와 죄인들은 팔팔 뛰면서 영원무궁토록 세월을 보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세주를 만나가지고 영생을 못 얻으면 그건 그야말로 너무나 처참하고 너무나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불쌍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하기 위해서 구세주의 몸으로 7년 동안 징역살이를 한 것입니다. 보통 사람의 몸도 아닌 그 굉장하고도 귀한 구세주의 몸이 7년 동안 대신 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죄인의 그 벌을 대신 받지 않고는 이 세상 사람들을 다 살릴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 하늘의 역사가 이루어지면 마귀들이 끝장난다

구세주가 사람을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전부 하나님을 만들기 위해서

온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되면 승리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지, 보통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승리가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마귀를 이긴 하나님일 까, 마귀한테 진 하나님일까? 마귀를 이긴 하나님이죠. 그래서 사망 권세를 이긴 하나님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바 되리라’, 고린도 전서 15장 26절 ‘맨 나중에 멸망 받을 원수는 사망 아니라’ 그러니까 사망이 맨 나중에 멸망 받는다는 것입니다.

구세주 이긴자의 마음상태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 상태이기에, 7년 동안 징역을 살고 나오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려고 이제 옥중에다가 피신을 시킨 걸로 생각하니까 옥중생활의 고통스런 것이 도리어 감사하고 기쁜 생활이 됐다.”고 주님 자신을 간증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서울구치소에 구속되어 며칠 지나지 않아서 편지가 날아왔는데, “너, 참 운이 좋은 놈이다! 너, 하루만 늦었으면 죽었어! 너를 죽이려고 너희 집을 추적해서 집을 알아놓고 내일쯤 솜서서 소리 나지 않는 총으로 죽이려고 했어! 그런데 내가 옥중에 갇혀 있는 바람에 내가 살게 된 것은 이긴 참 운이 좋다!”라고 가명으로 쓴 것으로 “주소도 가짜니까 추적할 생각도 하지 말고 너를 죽이려고 했는데 내가 내 주소를 어떻게 쓰느냐? 이 바보야!”라는 내용까지 다 쓰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구세주를 죽이려고 했던 건 뭐냐 하면, 구세주가 있는 한 하늘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귀들이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하늘의 역사가 이루어지면 마귀들이 끝장나니까 자기네들이 죽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현재 이 세상은 마귀가 집권하고 있는 세상인데, 이 마귀 세상에 걸도 없이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을 얻고자 하는 자들은

생명을 걸고 구세주를 보호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세주가 없는 구원이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생명을 걸고 희생적인 생활과 반대생활로 투쟁함으로써 그 마음이 ‘나라는 마귀를 죽여 없앨 수 있는 강한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 “제발 비 좀 오게 해주세요!”

1994년 정월에 구세주가 구속되어 그 해 6월, 7월까지 비가 오지 않아 가물어서 난리가 난 것입니다. 당시 7월 하순이었는데 금데두리 달은 교도관 간부들이 감방에 있는 주님한테 찾아와서 ‘제발 비 좀 오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재판할 때에 “비를 오게도 하고 못 오게도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하는 것을 그들이 들었던 것입니다. 또 주님을 비난하기 위해 텔레비전에서 ‘조 교수가 비를 오게도 하고 못 오게도 한다’라며 떠들고 신문에도 난 기사를 보았던 것입니다.

주님께서서는 교도소 안에서 그런 일을 모르고 있는 것처럼, “아, 그래요? 그게 사실이라는 말이예요?”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교도관은 호수에 있는 물이 말라서 썩어 갈라져 있는 모습이 찍힌 사진을 들고 와서 보이면서, “이렇게 비가 안 와가지고 우리나라 백성들이 다 죽기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비 좀 오게 해주세요!”하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하루 와서 비 오게 해달라는 말 듣고 재깍 비 오게 하면 너무 가볍기에 돌려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에도 교도관이 감방에 있는 주님을 찾아와서, ‘비를 제발 오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비를 오게 해 줄 테니까 당신이 날 내보내줄 수 있겠소?” 하니까, 교도관은 “아유, 그건 못합니다. 그런 조건 불인다면 나한테는 그런 권한이 없으니까 그런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비만 오게 해주세요.” 하고서 막 비는 것이었습니다.(다음호에 계속)\*

백한수



(지난호에 이어서)  
[예] 중일아함경제 45권 불선품(不善品) 제 48入前品(4)

爾時阿難白世尊言  
如來亦說 過去恒沙諸佛取滅度者 如來亦知  
여래역설 과거항사제불취멸도자 여래역지  
當來恒沙 諸佛方當來者 如來亦知  
당래항사 제불방당래자 여래역지  
如來何故 不記爾許佛所造 今但說七佛本末  
여래하고 불기아허불소조 금단설칠불본말  
그때 아난이 세존께 여쭙었다.

여래(석존)께서는 과거 간지스 강의 모래와 같은 여러 부처님이 멸도 하시고, 여래께서는 또한 간지스 강의 모래와 같이 모든 부처님이 장차 오실 것도 또한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래께서는 어찌하여 그 많은 부처님들이 저를 바를 말씀치 않고, 지금 일곱 부처님들의 처음과 끝만 말씀하십니까?

佛故阿難  
불고아난  
皆有因緣本末故 如來說七佛之本末  
개유인연본말고 여래설칠불지본말  
過去恒沙諸佛亦說七佛本末  
과거항사제불역설칠불본말

將來彌勒出現世時 亦當記七佛之本末  
장래미륵출현세기 역당기칠불지본말지

세존께서 아난에게 이르시길, 모든 것에는 인연의 처음과 끝이 있나니, 여래(석존)가 일곱 부처님의 처음과 끝을 말했듯이, 과거의 간지스 강의 모래와 같은 모든 부처님들도 또한 일곱 부처님의 처음과 끝을 말했고, 장차 오실 미륵 부처님이 세상에 나타나실 때에도 또한 마땅히 일곱 부처님의 처음과 끝을 말씀하실 것이다.

해설 : 석존 당시의 과거칠불(過去七佛)은 1. 비바시(毘婆尸) 2. 시기(尸棄) 3. 비사부(毗舍浮) 4. 구류순(俱留孫) 5. 구나함모니(俱那含牟尼) 6. 가섭(迦葉) 7. 석가모니(釋迦牟尼)로 석존이 스스로 7번째 부처라고 말할 하였지만, 그것은 지금까지 여러 독자들에게서 살펴본 대로 미래를 대비한 방편의 말씀이었고, 진실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미륵부처님(彌勒佛)께서 다시 말씀하신다고 하였는데...

## 석가모니는 줄곧 미륵만 기다렸다 <10>

# 석가모니는 미륵을 기다렸다 <10>



과거칠불(過去七佛)  
출처: <https://blog.naver.com/ksjin0212/221379423357>

## 석가모니의 과거칠불과 미륵불의 현재 칠불

해설 : 석존 당시의 과거칠불(過去七佛)은 1. 비바시(毘婆尸) 2. 시기(尸棄) 3. 비사부(毗舍浮) 4. 구류순(俱留孫) 5. 구나함모니(俱那含牟尼) 6. 가섭(迦葉) 7. 석가모니(釋迦牟尼)로 석존이 스스로 7번째 부처라고 말할 하였지만, 그것은 지금까지 여러 독자들에게서 살펴본대로 미래를 대비

한 방편의 말씀이었고, 진실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미륵부처님(彌勒佛)께서 다시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미륵부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미륵부처님은 사춘기 때 기독교에 입문하셔서 사실은 불교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불 후 미륵부처님의 뿌리를 말씀하실 때에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신이 어떻게 인간들에게 유전되어 왔는가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신이 함께한 ①아브라함, 두 번째 하나님의 신이 함께한 ②이삭, 세 번째 하나님의 신이 함께한 ③야곱을 거쳐 하나님의 심판권을 물려받은 우리 한국민족의 시조인 ④단군, 그리고 미륵부처님의 영적 어머니셨던 영모님으로 불렀던 ⑥박태선 장로, 해와 이긴자 ⑥홍권사를 이어서 완성자가 된 ⑦조희성 미륵부처님으로 3천 년 전에 석존께서 예언했던 일곱부처님들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미륵부처님께서는 성불하기 전에는 불경에 이런 말씀이 기록된 것을 모르셨으며 단상에서 신도들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인간들을 통하여 역사하셨는가를 말씀하시는 가운데 나온 말씀입니다.

즉 이 말씀의 뜻은 종교는 달라도 한 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중생들을 제도하여 구원한다는 뜻입니다. 다만 현재 세상의 종교와 민족에 따라 주인공 구세주는 각각 달리 부르지만 한 분을 가리키는 일합상의 의미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6번째 부처였다고 한 가섭 부처님(迦葉佛)은 과연 있었을까요?  
다음은 보시기 바랍니다.

[예] 대만열반경 16권 범행품( 범行品) 3

善男子 大涅槃經常不變易  
선남자 대열반경상불변역  
云何難言 迦葉佛時有是經不  
운하난언 가섭불시유시경불

선남자여, 대만열반경은 항상하고 변하여 바뀌지 않는 것인데 어찌하여 가섭 부처님 때에도 이 경(大般涅槃經)이 있었느냐고 묻느냐?

해설 : 이렇게 석존은 가섭부처님(迦葉佛)이 없었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이 말의 뜻은 석가모니 제자들의 수준도 알 수 있는 것이다. 완성된 완벽한 부처가 나오면 그다음의 주인공이 필요 없다는 뜻이다.

범화경 방편품에 석가모니가 가짜로 삼승의 도를 가르쳤다면 그다음에 부처가 필요하고 연등불이 있었다면 석가모니도 필요 없는데, 이런 진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으니 그 수준을 알만하지요.\*

명鍾